29 일차

매일 매일 꾸준히!

하루는 짧지만 그 하루가 모이면
당신의 생각 그 이상의 것이 된다.

[1~3]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앞부분 줄거리] 옛날 서역 파사국의 왕은 세 부인을 두었는데, 왕이 자리를 비운 사이 셋째 부인 보만후가 왕자를 낳자 이를 시기한 두 왕후는 왕자를 소 구유에 버린다. 암소에게 삼켜진 왕자는 죽지 않고 금송아지의 모습으로 태어나 보만후를 돕게 된다. 그러나 이 사실을 알게 된 두 왕후에 의해 또 다시 죽을 위기에 처하게 된 금송아지는 궁궐을 떠나기 전에 보만후의 처소에 찾아온다.

금송아지 눈물 흘리며 아뢰기를,

"소자 어찌 모친의 자식이 아니리이꼬, 자초지종을 말씀하올 것이니 들으시옵소서. 모친께서 해산하실 때에 두 왕후가 채란으로 하여금 소자를 잡아 내고 고양이를 잡아 가죽을 벗기고 고기를 가져다가 산실에 넣고 아해는 산에 버렸더니, 백학(白鶴)이 와서 나래를 덮어 주매, 다시 가져다가 큰 암소 구유에 넣고 여물을 덮었더니, 천상 나한의 소가 내려와 온통으로 삼켜 구 삭만에 옆을 트고 나오매, 소 허물을 쓰고 있어 속은 사람이요 거죽은 송아지 모양이라. 허물 벗을 때까지 모친을 모시고 지내고자 하였더니 두 왕후와 채란이 눈치를 채고 소자를 없애고자 하여 거짓 병들었다 하고 송아지 간을 먹어야 낫는다 하고 어의에게 밀지를 전하매, 어의 이를 알고 소자를 구하고 개를 잡아 간을 내어 바치매, 소자가 죽은 줄 알고 있사오니, 오래 여기 있다가는 화(禍)가 또 있을지라. 소자는 이 길로 우전국으로 가오니 복망 모친은 과도히 슬퍼 마옵소서. 잠깐 고생하옵시면 좋은 때가 있으리이다."

하고 모친을 배별하니, 보만후 이 말을 듣고 달라들어 송아지를 안고 송아지는 모친을 안고 우니, 그 정상을 어찌 다 기록하리요.

차설, 금송아지 모친을 배별하고 서쪽으로 향하다가, 일위 백발 노인을 만나 묻기를,

"노인은 어디를 가시나이까?"

그 노인이 이르기를,

"나는 우전국으로 가거니와, 너는 어디로 가며, 짐승이 어찌 말을 하느뇨?"

금송아지 대답하기를,

"내 몸이 비록 짐승이나 사람과 다름이 없나이다. 이제 노인 가시는 곳에 데려다 주옵소서."

노인이 심중에 생각하되,

'이 짐승이 사람과 같이 말하니, 필경 연고 있으리라.'

이리하여 함께 길을 떠나 우전국에 다다르니라.

차설, 이 나라에도 태자 없고 공주 하나뿐이라. 공주의 옥모화용(玉貌花容)과 섬섬세요와 옥수염장(玉手艶裝)*이 휘황찬란하여 천승국모지풍(千乘國母之風)*이며, 일세국색(一世國色)이라. 왕이 극히 애중하여 저와 같은 부마(駙馬)를 간택하여 쌍루함을 보려 하시더라.

하루는 공주 한 꿈을 얻으니, 하늘에서 금신이 내려와 이르되,

"너의 배필은 하늘이 정한 연분이 따로 있으니, 종로 네거리에 짚으로 북을 만들어 걸고 사람이고 짐승이고 짚북을 쳐서 소리를 내는 것이 네 배필이니, 부디 명심하여 천정가우(天定佳偶)*를 잃지 말라."

(중략)

이때 금송아지 노인을 따라 우전국에 이르니, 노상 행인들이 서로 웃으며 말하기를,

"나중에는 별일도 다 많도다. 짚북에서 무슨 소리가 나며, 부마를 뽑으려면 재상가(宰相家)에 어진 신랑감이 많거늘, 하필이면 짚북을 쳐 소리 내는 사람이라야 부마를 삼을꼬. 허무맹랑한 일도 많도다."

이에 금송아지 듣고 속으로,

'관음보살이 이르되 짚북을 치면 자연 좋은 일이 있다 하시니, 과연 허언이 아니로다.'

노인과 같이 종로에 이르러 보니, 사람이 겹겹으로 짚북을 에워싸고 각기 한 번씩 쳐서 보는지라.

금송아지 사람을 헤치고 들어가 두 발로 구르며 껑충 뛰어 짚북을 치니, 소리 웅장하여 장안이 진동하는지라. 좌우 놀라 자세히 보니 오색이 영롱하고 향취가 촉비한 일개 금송아지인지라. 모든 사람들이 백발노인을 향하여 값을 불계(不計)*하고 팔라 하며, 또한 금송아지 말한다 하여 크게 요란하더라.

공주 누각 위에 앉았다가 북 소리를 듣고 본즉, 사람이 아니요 송아지라. 속으로 생각하되,

'꿈속에 사람이고 짐승이고 북을 쳐 소리를 내는 것이 즉 배우라 하였으니, 이는 하늘이 정하신 배필이라.'

누각에서 내려와 금송아지를 데리고 공주궁으로 가는지라. 사람들이 크게 웃으며 말하기를

"짚북을 걸어 놓고 부마를 구한다 하시더니, 송아지 사위를 얻었구나."

거리거리 웃음 소리에 귀가 아프더라.

국왕이 이 말을 듣고 크게 놀라 탄식하여 이르기를,

"내 말년에 무남독녀를 두었다가 저와 같은 쌍을 얻지 못하고 송아지 사위를 얻을 줄 꿈에나 생각하였으리요. 송아지를 죽여 인국의 부끄러움을 씻으리라."

다시 생각하되,

'하여간 이상한 일이로다. 짚북에서 소리나는 것은 심상치 아니한 일이니, 둘을 다 쫓아 내 눈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 상책이라.'

— 작자 미상, 「금우태자전(金牛太子傳)」 -

* 옥모화용, 섬섬세요, 옥수염장: 아름다운 여인의 용모와 몸매, 차림새
* 천승국모지풍: 천승국의 국모, 즉 황후의 풍모
* 천정가우: 하늘이 정한 배필
* 불계: 이롭고 해로움 따위를 가려 따지지 않음.

1. 위 글의 서술상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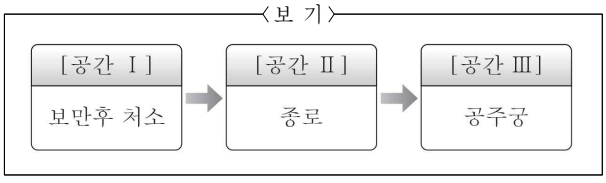
① 대화를 통해 인물 간의 갈등을 해소하고 있다.
② 배경 묘사를 통해 사건의 전개를 암시하고 있다.
③ 전기적인 요소를 사용하여 작품에 신비감을 조성하고 있다.
④ 시대적 특성을 구체화하여 사건에 사실감을 부여하고 있다.
⑤ 인물의 특정한 행위를 반복하여 작품의 해학성을 강화하고 있다.

2. 위 글에 나타난 [질북]의 기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금송아지'와 '공주'의 결연을 매개한다.
② '국왕'과 '금송아지' 간의 친밀감을 유발한다.
③ '노인'에게 뜻밖의 경제적 부를 가져다준다.
④ '공주'의 궁궐 내 위상을 더욱 상승하게 한다.
⑤ '사람들'로 하여금 '금송아지'의 마음에 공감하도록 한다.

3. <보기>는 위 글에 나타난 공간을 도식화한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위 글을 이해할 때, 적절하지 <u>않은</u> 것은? [3점]

〈보 기〉



① '공간Ⅰ'에서 '금송아지'는 자신에게 닥칠 미래의 위험을 피하기 위해 '보만후'에게 이별을 고했군.
② '금송아지'가 '공간Ⅰ'에서 '공간Ⅱ'로 가는 도중에 만난 '노인'은 특별한 사연이 있다고 판단하여 '금송아지'의 부탁을 수락했군.
③ '공간Ⅱ'에서 '사람들'은 '공주'의 이야기를 듣고 '금송아지'의 내력을 알게 되었군.
④ '금송아지'가 '공간Ⅱ'에서 '공간Ⅲ'으로 이동하게 되는 것은 '공주'가 꿈의 계시를 받아들였기 때문이군.
⑤ '공주'는 '국왕'에 의해 '공간Ⅲ'에서 쫓겨날 위기에 처하게 되었군.

[4~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부귀(富貴)라 구(求)치 말고 **빈천(貧賤)**이라 염(厭)치* 말아
인생(人生) 백년(百年)이 한가(閑暇)할사 사니 이 내 것이
백구(白鷗)야 날지 말아 너와 **망기(忘機)***하오리라.
<제1수>

천심절벽(千尋絶壁) 섯난 아래 일대장강(一帶長江) 흘너간다.
백구(白鷗)로 벗을 삼아 **어조(漁釣)*** **생애(生涯)** 늘거가니
두어라 **세간 소식(世間消息)** 나난 몰나 하노라.
<제2수>

보리밥 과 생채(生菜)를 **양(量)** 맛촤 먹은 후(後)에
모재(茅齋)*를 다시 쓸고 북창하(北窓下)에 누엇시니
눈 압해 태공(太空) 부운(浮雲)*이 오락가락 하놋다.
<제3수>

공산리(空山裏) 저 가난 달에 혼자 우난 저 **두견(杜鵑)**아
낙화광풍(落花狂風)*에 어느 가지 의지 하리
백조(百鳥)야 한(恨)하지 말아 내곳 설워 하노라.
<제4수>

저 가막이 즛지 말아 이 **가막이** 좃지 말아
야림(野林) 한연(寒烟)*에 날은 죠차 저물거날
어엿불사 편편(翩翩) 고봉(孤鳳)*이 갈 바 업서 하낫다.
<제5수>

서산(西山)에 해 저 간다 고기 빅 썻단 말가
죽간(竹竿)*을 둘너 뫼고 십 리(十里) 장사(長沙) 나려가니
연화(烟花)* 수삼(數三) **어촌(漁村)**이 무릉(武陵)인가 하노라.
<제6수>

- 권구, 「병산육곡(屛山六曲)」 -

* 염치: 싫어하지
* 망기: 속세의 일이나 욕심을 잊음.
* 어조: 물고기를 낚음.
* 모재: 띠로 지붕을 이은 집
* 태공 부운: 넓은 하늘에 떠다니는 구름
* 낙화광풍: 꽃잎이 떨어지도록 미친 듯이 부는 바람. 정치적으로 혼탁하고 험난한 현실을 비유적으로 표현함.
* 야림 한연: 들판 숲속의 차가운 안개
* 편편 고봉: 훨훨 나는 외로운 봉황
* 죽간: 대나무 장대. 여기서는 대나무로 만든 낚싯대
* 연화: 안개가 피어오르는

4. 위 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u>않은</u> 것은?

① 대구의 방식을 활용하여 리듬감을 부여하고 있다.
② 다양한 자연물을 통해 시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③ 과거와 현재를 대비하여 주제의식을 표출하고 있다.
④ 시적 대상에 감정을 이입하여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
⑤ 설의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시적 상황을 강조하고 있다.

5. 위 글에 사용된 시어들을 연관 지어 감상하였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제1수>에 드러난 '망기'에 대한 화자의 바람이 <제2수>의 '어조 생애'로 실현되고 있군.
② <제2수>의 '세간 소식'과 단절하려는 화자의 태도는 <제4수>의 '낙화광풍'으로 비유된 상황 때문이라고 할 수 있어.
③ <제3수>의 '보리밥 파 생채'를 '양' 맞추어 먹는 모습에서 <제1수>의 '부귀'를 구하지 않는 삶의 태도를 확인할 수 있어.
④ <제4수>의 '두견'을 부를 때의 화자의 심리는 <제5수>에서 '가막이'에 대한 화자의 심리와 유사하다고 할 수 있어.
⑤ <제6수>에서 화자가 처한 공간인 '어촌'에서 느끼는 만족감은 <제1수>의 '빈천'에 대한 화자의 인식이 바탕이 된 것이겠군.

[6~9]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앞부분 줄거리] '나'의 아버지는 부면장 댁의 충직한 머슴으로 전쟁의 와중에 부면장 댁을 지키려 하였으나, 오히려 부면장을 죽였다는 누명을 쓰고 부면장 가족들과 마을사람들의 묵인 하에 청년들에게 죽임을 당한다. '나'는 벗 장돌식과 아버지의 돌무덤을 만들고 홀로 마을을 떠난다. 30년의 세월이 흐른 후 돌아온 '나'는 장돌식을 시켜 돈으로 마을사람들의 품을 사서 아버지의 묘를 이장하도록 한다.

까치산 봉우리에 큰 잔치가 벌어진 듯 벅신거렸다. 술과 돼지고기도 푸짐하게 마련하여 아무나 싫도록 먹게 하였다. 돼지고기를 안주로 욕심껏 퍼마신 술에 거나해진 마을사람들은, 월곡리가 생긴 이래 가장 포실한 잔치를 벌였다면서, 내 앞에 와서 넙죽넙죽 허리를 굽히며 고마워하는 것이었다.

나는 비닐봉지 속의 아버지 ㉠유골 부스러기를 향해 마음속으로 힘주어 말하고 있었다.

— 아버님, 이제 한이 풀리십니까. 옛날 아버님을 소처럼 부리고 개처럼 천대하던 주인의 아들들이 내가 시킨 대로 아버님 무덤에 덮을 ㉡멧장을 떠 왔습니다. 그리고 자기네들 죄를 벗으려고 죄 없는 아버님을 죽인 네 사람들이 아버지의 무덤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제 이만하면 저의 한이 풀렸으니 아버님의 한도 풀리셨겠지요.

유골 부스러기를 광 속에 놓고 흙을 덮으면서도 그 말을 마음속으로 다시 한 번 되풀이했다.

유골이 땅속 깊숙이 묻히고, 덩실하게 봉분을 짓기 시작하자 나는 차츰 형언할 수 없는 야릇한 쾌감을 맛보았다.

"이만하면 월곡리 안에서는 젤로 ㉢큰 묘등이 되겠구만."

"석물만 앉힌다면 세종대왕 능보다 더 덩실해!"

마을사람들은 나 듣기 좋으라고 그러는지 큰 소리로 한마디씩 하였다.

이장 일을 모두 끝내고 마을사람들이 빙 둘러앉아서 남은 돼지고기를 안주 삼아 막걸리를 한 잔씩 돌려 마시고 있는 자리에서, 나는 계획대로 내 신분을 밝혔다. 나는 그들이 내 신분을 알고 얼마나 놀라서 까무러칠까 하는, 일종의 달콤한 복수심을 생각하면서 자랑스럽고 떳떳하게 내 아버지의 이름을 말했다.

"여러분들 오늘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실은 제 고향이 바로 월곡립니다. 30년 전에 이 마을에서 나갔었죠. 제 가친은 오랫동안 머슴을 살았던 황바우 씹니다요. 오늘 여러분들이 묘를 써주신 분."

나는 되도록 목줄에 힘을 주어 그렇게 말하면서 마을사람들의 놀라는 표정을 기대했다. 그러나 이상한 일이었다. 마을사람들 표정에 별로 크게 놀라는 빛이 없었다. 특히 나는 **부면장네 아들**과 아버지를 죽인 **네 사람**들의 얼굴을 유심히 살펴보았지만, 죄스러움이나 위축감 따위의 기색이 보이지 않았다.

"그렇다면 첨부터 황바우 아들이라고 밝힐 것이제 원!"

"아들이 잘된 걸 보니 ㉣돌무덤 자리가 명당이었던갑구만."

"황바우 일이라면 우리가 이르케 많은 돈을 받기가 미안헌디."

"참말로 사람 팔자는 알 수 없는 일이구만."

"그나저나 돈 벌어서 효도 한번 푸지게 잘했네그려."

하고들 몇몇 사람들이 언뜻언뜻 한마디씩 뱉어냈을 뿐이었다.

월곡리 사람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마지막 남은 한 잔의 술까지도 깡그리 털어 마시고, 저물어가는 햇살을 받으며 거나하게 취해서 기분 좋게 흥얼거리며 까치산에서 내려가 버렸다.

나는 순간 까치산에서 내려가고 있는 마을사람들의 뒷모습을 바라보기조차 자신이 부끄러워 고개를 돌려버렸다.

(중략)

양귀비꽃 같은 놀이 깔리기 시작하는 까치산 꼭대기에는 나와 **장돌식**과 음식 그릇을 치우는 장돌식의 처만 남아 있었다.

나는 장돌식이한테 인부를 불러 아버지의 돌무덤에서 한쪽 다박솔 옆에 숨겨놓다시피 한 못생긴 큰 ㉤돌을 버스길까지 운반해 주도록 부탁하고, 아버지의 큰 무덤 위에 올라앉아 월곡리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 돌은 왜 신작로까지 운반하라고 그러는가?"

장돌식은 산을 내려가던 인부 한 사람을 불러 내가 부탁한 대로 다박솔 옆의, 30년 전 우리들이 끙끙거리며 옮겼던 큰 돌을 운반해 달라고 시키고 나서 내 옆에 쪼그리고 앉으며 물었다.

"집으로 가져가려고."

"미쳤는가? 하필이면 그 큰 돌을……"

"어쩐지 그 돌에 우리 아버지의 혼이 들어 있을 것 같아서…… 그리고 자네와 나 두 사람의 우정과, 월곡리 마을사람들의 마음도…… 그 돌이라도 집에 갖다 놔야 고향을 잊어버리지 않을 것 같아서……"

나는 장돌식을 보며 허탈하게 웃으면서 말했다.

"건 그렇고. 그래, 자네 기분이 어쩐가? 이제야 한이 풀리는가?"

장돌식도 나를 보고 씁쓸하게 웃으면서 물었다.

"내가 아무래도 잘못 생각했던 것 같구만. 이렇게까지 하지 않았어도 되는 건데 말일세. 이제 부끄러워서 다시는 고향에 올 수가 없겠어. 내가 크게 잘못했네. 아버지의 한을 풀어주기는커녕 되레 아버지를 욕되게 하고 말았어."

나는 마치 내 심장을 떼어서 아버지의 유골 부스러기와 함께 무덤 속에 파묻어버린 것처럼 마음이 공허해졌다. 우울하고 공허한 마음 때문에 말 한마디 없이 산을 내려왔다. 장돌식이가 부면장 아들과 약속한 대로 하룻밤 더 묵고 가라고 붙잡는 것을 탈탈 뿌리쳤다. 내가 저지른 부끄러움 때문에 마을사람들의 얼굴을 다시 볼 수가 없을 것 같았다.

나는 돌을 깔고 앉은 채 버스 안에서 자울자울 졸았다.

꿈속에서 나는 아버지를 깔고 앉아 있었다. 내 엉덩이 아래 깔린 아버지가 몹시 괴로운 듯 버둥거리더니 '이 불효막심한 놈아' 하고 고함을 쳤다. 고함소리에 놀란 나는 벌떡 일어났다. 빵빵 자동차 클랙슨 소리가 귀청을 뜯었다. 버스는 불빛 사이에 낡은 기억처럼 어둠이 출렁이는 도시로 접어들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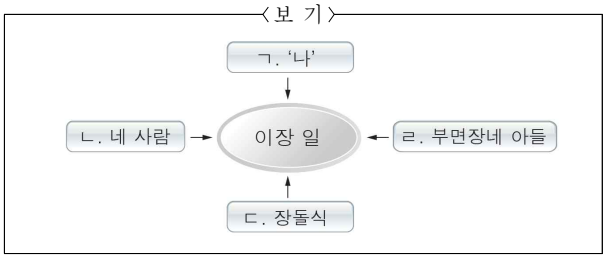
- 문순태, 「말하는 돌」 -

6. 위 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시간의 흐름을 역전시켜 과거의 사건을 부각하고 있다.
② 인물의 세밀한 외양 묘사를 통해 성격을 구체화하고 있다.
③ 다양한 작중 인물의 시각을 통해 동일한 사건을 분석하고 있다.
④ 사건을 객관적으로 서술하여 상황 판단을 독자에게 맡기고 있다.
⑤ 작품 속 서술자의 심경 변화를 통해 주제의식을 드러내고 있다.

7. <보기>는 '이장 일'과 관련된 인물들이다.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① ㄱ은 결국 ㄴ, ㄹ을 이장 일에 참여시킨 것에 대해서 부끄러워했군.
② ㄴ, ㄹ은 이장 일이 끝나기 전까지 ㄱ의 신분을 알지 못했군.
③ ㄷ과 달리 ㄴ, ㄹ은 앞장서서 이장 일을 주도하고 있군.
④ ㄷ이 이장 일에 참여하는 동기는 ㄴ, ㄹ과 다르다고 할 수 있군.
⑤ ㄷ은 ㄱ이 이장 일을 통해 이루려 했던 의도를 짐작하고 있었군.

8. <보기>를 참조하여 위 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u>않은</u> 것은? [3점]

〈보 기〉

문순태의 소설에서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한의 맺힘과 풀림의 과정이다. 우리의 역사는 전쟁이나 사회적 위기의 상황에서 수많은 아픔을 지니고 있고, 이 속에서 애꿎은 민중이 서로에게 의도하지 않은 상처를 준 과거를 지니고 있다. 그의 소설은 이러한 비극적 역사에서 기인하는 한을 어떠한 방식으로든 풀어나가고, 궁극적으로는 인물들의 정신적 상처를 치유함으로써 화해가 이루어지기를 모색한다.

① '나'가 지닌 한이 이 작품에서 탈향과 귀향의 동기가 되고 있군.
② '황바우'의 비극적 운명은 우리 역사의 아픔을 나타내고 있군.
③ '나'는 한을 맺히게 한 당사자로서 '마을사람들'에게 화해의 몸짓을 보이고 있군.
④ '나'와 '마을사람들'의 재회에는 '나'의 정신적 상처를 치유하려는 작가 의식이 반영되어 있다고 하겠군.
⑤ '마을사람들'은 과거 전쟁의 와중에 서로 의도하지 않은 상처를 주었던 아픔에서 어느 정도 벗어나 있다고 하겠군.

9.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u>않은</u> 것은?

① ㉠은 '나'가 가진 한의 근원이 되는 대상이다.
② ㉡은 '나'에게 한풀이의 수단으로 기능한다.
③ ㉢은 '나'의 부친의 삶에 대한 보상 심리를 반영한다.
④ ㉣은 '나'의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자극하는 매개체이다.
⑤ ㉤은 '나'가 오래도록 잊지 않을 만한 가치를 담고 있다.

[10~1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오늘은 정월(正月) 보름이다
대보름 명절인데
나는 멀리 고향을 나서 남의 나라 쓸쓸한 객고에 있는 신세로다
옛날 두보나 이백 같은 이 나라의 시인도
먼 타관에 나서 이 날을 맞은 일이 있었을 것이다
오늘 ㉠ 고향의 내 집에 있는다면
새 옷을 입고 새 신도 신고 떡과 고기도 억병 먹고
일가친척들과 서로 모여 즐거이 웃음으로 지날 것이언만
나는 오늘 때묻은 입든 옷에 마른 물고기 한토막으로
혼자 외로히 앉어 이것저것 쓸쓸한 생각을 하는 것이다
옛날 그 두보나 이백 같은 이 나라의 시인도
이날 이렇게 마른 물고기 한토막으로 외로히 쓸쓸한 생각을 한 적도 있었을 것이다
나는 이제 어느 먼 외진 거리에 한고향 사람의 조고마한 가업집이 있는 것을 생각하고
이 집에 가서 그 맛스러운 떡국이라도 한 그릇 사먹으리라 한다
우리네 조상들이 먼먼 옛날로부터 대대로 이날엔 으레히 그러하며 오듯이
먼 타관에 난 그 두보나 이백 같은 이 나라의 시인도
이날은 그 어느 한고향 사람의 ㉡ 주막이나 반관(飯館)을 찾어가서
그 조상들이 대대로 하든 본대로 원소(元宵)라는 떡을 입에 대며
스스로 마음을 느꾸어 위안하지 않았을 것인가
그러면서 이 마음이 맑은 옛 시인들은
먼 훗날 그들의 먼 훗자손들도
그들의 본을 따서 이날에는 원소를 먹을 것을
외로히 타관에 나서도 이 원소를 먹을 것을 생각하며
그들이 아득하니 슬펐을 듯이
나도 떡국을 놓고 아득하니 슬플 것이로다
아, 이 정월(正月) 대보름 명절인데
㉢ 거리에는 오독도기 탕탕 터지고 호궁(胡弓) 소리 빨빨 높아서
내 쓸쓸한 마음엔 자꾸 이 나라의 옛 시인들이 그들의 쓸쓸한 마음들이 생각난다
내 쓸쓸한 마음은 아마 두보(杜甫)나 이백(李白) 같은 사람들의 마음인지도 모를 것이다
아무려나 이것은 옛투의 쓸쓸한 마음이다

– 백석, 「두보(杜甫)나 이백(李白)같이」

(나)

그녀의 함석집 귀퉁배기에는 늙은 고욤나무 한 그루가 서 있다

방고래에 불 들어가듯 고욤나무 한 그루에 눈보라가 며칠째 밀리며 밀리며 몰아치는 오후

그녀는 없다, 나는 ㉣ 그녀의 빈집에 홀로 들어선다

물은 얼어 끊어지고, 숯검댕이 아궁이는 퀭하다

저 먼 나라에는 춥지 않은 ㉤ 그녀의 방이 있는지 모른다

이제 그녀를 위해 나는 그녀의 집 아궁이의 재를 끌어낸다

이 세상 저물 때 그녀는 바람벽처럼 서럽도록 추웠으므로

그녀에게 해줄 수 있는 일은 식은 재를 끌어내 그녀가 불의 감각을 잊도록 하는 것

저 먼 나라에는 눈보라조차 메밀꽃처럼 따뜻한 그녀의 방이 있는지 모른다

저 먼 나라에서 그녀는 오늘처럼 밖이 추운 날 방으로 들어서며 맨 처음 맨손바닥으로 방바닥을 쓸어볼지 모르지만, 습관처럼 그럴 줄 모르지만

이제 그녀를 위해 나는 그녀의 집 아궁이의 재를 모두 끌어낸다

그녀는 나로부터도 자유로이 빈집이 되었다

– 문태준, 「가재미 3 – 아궁이의 재를 끌어내다」

(다)

시에서 장소는 실재하는 물리적 공간, 또는 형상화된 상상의 공간으로서 화자의 경험이나 감정과 관련하여 주관적으로 해석되는데, 특정 장소에 대해 화자가 느끼는 이러한 정서를 '장소감'이라 한다.

장소는 안과 밖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화자는 물리적으로는 물론 심리적으로도 장소의 안 또는 밖에 자리하게 된다. 화자가 특정 장소의 안에 있다고 느끼는 소속감이나 일체감은 장소와 화자 사이에 정서적 유대를 형성해 내는데, 이렇게 유대감을 바탕으로 한 긍정적 장소감을 '장소애'라 일컫는다. 한편, 화자가 장소의 밖에 있다고 느끼는 소외감은 화자로 하여금 부정적인 장소감을 갖게 만든다. 이때 장소에 대해 화자가 느끼는 소외감은 크게 두 가지 상황에서 비롯되는데, 과거에 진정한 장소애를 경험했다가 자의든 타의든 이를 잃게 되어 상실감을 느끼게 되는 경우가 그 하나이고, 특정한 장소감이 형성되지 않았거나 아직 장소에 익숙하지 않아 특정 장소에서 공감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그 다른 하나이다.

[A] 시에 나타난 화자의 장소감은 화자가 처한 현실 상황과 내면 의식, 지향점 등에 대해 알게 해 준다. 또한 장소의 시간적 배경이나 그 장소에 놓인 어떤 특정 대상들은 이러한 화자의 장소감, 즉 그 내면의 정서를 강화나 확장, 또는 약화시키는 기제로 작용하기도 하며, 과거에서 현재로, 혹은 현재에서 미래로 시간과 공간의 경계를 넘나드는 매개가 되기도 한다.

10. (가)와 (나)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시구의 반복과 변주를 통해 시적 상황을 부각한다.
② 특정한 대상을 청자로 설정하여 시적 태도를 드러낸다.
③ 특정 색채 이미지로 탈속적 세계에 대한 지향을 드러낸다.
④ 음성 상징어를 사용하여 생동감 있는 시적 분위기를 조성한다.
⑤ 명사형으로 시행을 종결하여 시상이 집약되는 효과를 나타낸다.

11. (다)를 바탕으로 ㉠~㉤을 이해할 때 적절하지 <u>않은</u> 것은?

① ㉠은 화자가 물리적으로도 심리적으로도 그 안에 소속되어 있던 곳으로서 정서적 유대를 경험한 장소라 할 수 있다.
② ㉡은 화자가 과거에 두보나 이백이 겪었던 상황을 경험한 곳으로서 화자에게 장소애를 유발하는 장소라 볼 수 있다.
③ ㉢은 화자의 정서와 대비되는 분위기가 조성된 곳으로서 공감을 느끼지 못하는 화자에게 소외감을 불러일으키는 장소라 볼 수 있다.
④ ㉣은 과거에 존재했던 그녀가 현재에는 부재하는 곳으로서 화자에게 상실감을 느끼게 하는 장소라 할 수 있다.
⑤ ㉤은 화자의 내면 의식이 만들어낸 곳으로서 그녀에 대한 화자의 연민이 투영된 상상의 장소라고 볼 수 있다.

12. [A]를 바탕으로 (가)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남의 나라'에서 맞이하는 '대보름 명절'이라는 시간적 배경은 타관에서 느끼는 화자의 소외감을 더욱 고조시키고 있어.

② '마른 물고기 한토막'은 '일가친척들'과 함께한 고향에서의 경험과 연결되어 화자가 현재의 장소에서 느끼는 결핍감을 심화시키고 있어.

③ '한고향 사람의 조고마한 가업집'은 화자 내면의 지향점에 해당하는 장소로서 현재의 장소에 대한 화자의 부정적 장소감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는 기능을 하고 있어.

④ '떡국'은 화자가 자신이 처해 있는 현실 상황에서 느끼게 되는 외로움을 위로해 주는 동시에 그 외로움의 정서를 심화시키기도 하는 이중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어.

⑤ '원소'는 화자에게 시간과 공간의 경계를 넘어 다른 대상과 동질감을 느끼게 하는 매개로서 화자의 장소감을 다른 대상으로까지 확장하여 사고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고 있어.

13. <보기>를 참고하여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가재미 3」은 문태준의 '가재미' 연작 중 하나이다. 「가재미」는 암 투병 중이던 어머니의 임종 전 모습을, 「가재미 2」는 임종 후 장사지내는 모습을, 「가재미 3」은 어머니의 빈집을 다시 찾아온 화자의 모습을 그리고 있다.

「가재미 3」에서 화자는 '그녀'를 위해 '빈집'에 남겨진 아궁이의 재를 모두 끌어내고 있다. 이는 이승에서의 춥고 힘겨웠던 기억을 모두 없앰으로써 어머니의 영혼을 진정으로 자유롭게 하고, 동시에 어머니에 대한 가슴 아픈 기억, 어머니의 부재에 대한 슬픔도 함께 비워 냄으로써 자신의 마음에도 평온이 찾아오기를 바라는 화자의 마음이 담긴 행위로 볼 수 있다.

① '없다', '홀로', '퀭하다'의 시어에는 그녀가 부재하는 '빈집'에서 느끼는 화자의 쓸쓸한 정서가 담겨 있다고 볼 수 있겠군.

② 며칠째 눈보라를 맞고 있는 '늙은 고욤나무'처럼 서럽도록 추웠던 과거 그녀의 삶의 모습은 '바람벽'에 비유되어 있다고 볼 수 있겠군.

③ 식은 재를 끌어내어 '불의 감각을 잊도록 하는 것'은 그녀가 이승에서 겪은 고통스러운 기억을 모두 잊기 바라는 화자의 마음을 드러내는 것이군.

④ 화자는 그녀가 자신의 삶을 '눈보라조차 메밀꽃처럼 따뜻'했다고 추억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녀를 위해' 재를 끌어낸다고 말하는 것이겠군.

⑤ '나로부터도 자유로이 빈집'이 되었다는 것은 재를 모두 끌어냄으로써 그녀의 아픔은 물론 그녀와 관련한 자신의 슬픔까지도 모두 비워 내고자 하는 마음을 내포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군.

빠.른.정.답.

3	1	3	3	4
5	3	3	4	1
2	3	4		

[1~3] (고전소설) 작자 미상, 「금우태자전(金牛太子傳)」

1. [출제의도] 서술상의 특징 파악하기

이 작품에서는 '금송아지'가 말을 하고 짚으로 만든 북을 쳐서 소리를 내는 등 현실에서는 불가능한 전기적 요소를 사용하여 작품에 신비감을 조성하고 있다.

① 이 작품에서는 대화가 빈번하게 사용되고 있기는 하나, 이를 통해 인물 간의 갈등이 해소되는 장면은 제시되지 않았다.

2. [출제의도] 중심 소재의 기능 파악하기

'공주'의 꿈속에서 '금신'이 '공주'의 배필이 '짚북'을 쳐 소리를 내는 사람이나 짐승이라고 계시하였고, '금송아지'가 그 '짚북'을 쳐 소리를 내었다. '공주'는 꿈의 계시에 따라 '금송아지'가 하늘이 정한 배필이라 생각하여 '금송아지'를 공주궁으로 데리고 갔다. 이로 보아 '짚북'은 '금송아지'와 '공주'의 결연을 매개하는 기능을 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적절하다.

3. [출제의도] 공간의 이동에 따른 사건 파악하기

'공간Ⅱ'에서 '사람들'은 '금송아지'가 '짚북'을 쳐 소리를 울리자 놀랐고, 값을 따지지 않고 '금송아지'를 사려 하였다. 또한 '공주'는 북 소리를 듣고 꿈의 계시에 대해 혼자 생각하였을 뿐, 이를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지는 않았다. 따라서 '사람들'이 '공주'의 이야기를 듣고 '금송아지'의 내력을 알게 되었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4~5] (고전시가) 권구, 「병산육곡(屛山六曲)」

4. [출제의도] 표현상의 특징 파악하기

이 작품은 화자가 현재 자신이 처한 공간인 자연 속에서 안빈낙도하는 삶을 노래한 작품으로, 과거와 현재를 대비하고 있지 않다.

① 제1수의 '부귀(富貴)라 구(求)치 말고 빈천(貧賤)이라 염(厭)치 말아', 제5수의 '저 가막이 즛지 말아 이 가막이 좃지 말아' 등에서 대구법을 활용하여 리듬감을 부여하고 있다. ② 제4수에서 '공산', '달', '두견', '낙화', '백조' 등의 자연물을 통해 애상적인 분위기를 드러내고 있다. ④ 제4수의 '두견'은 의지할 곳 없는 화자의 슬픔과 외로움이, '백조'는 한스럽고 서러운 화자의 심정이 투영된 소재로 감정이입의 대상이라고 할 수 있다. ⑤ 제4수의 '낙화광풍(落花狂風)에 어느 가지 의지 하리', 제6수의 '서산(西山)에 해 저 간다 고기 비 씻단 말가' 등에서 설의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시적 상황을 강조하고 있다.

5. [출제의도] 시어들을 연관 지어 감상하기

<제4수>에서 화자가 '두견'을 부를 때의 심리는 의지할 곳 없고 외로운 '두견'에 대한 동일시와 연민의 감정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비해 <제5수>에서 화자는 '가막이'에 대해 '즛지' 말고 '좃지' 말라고 말함으로써 '가막이'에 대해 부정적인 심리를 보이고 있다. 그러므로 '두견'을 부를 때의 화자의 심리와 '가막이'에 대한 화자의 심리가 유사하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① <제1수>에서 화자는 '망기(忘機)'하겠다는 바람을 드러내고 있는데, 이는 속세의 일이나 욕심을 잊고 살아가겠다는 것이다. 그런데 <제2수>의 '어조 생애'는 물고기를 낚으며 살아가는 삶으로, '백구'와 벗하며 '세간 소식'과 단절하고 살아가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속세에서 벗어나 살아가는 삶으로, '망기'에 대한 바람이 실현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② <제2수>에서 화자는 '세간 소식(世間消息) 나난 몰나 하노라.'라고 하여 '세간 소식'과 단절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런데 <제4수>의 '낙화광풍'은 '꽃잎이 떨어지도록 미친 듯이 부는 바람'을 의미하는데, 이는 정치적으로 혼탁하고 험난한 현실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세간 소식'과 단절하려는 화자의 태도는 '낙화광풍'으로 비유된 상황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는 진술은 적절하다. ③ <제3수>의 '보리밥'과 '파 생채'는 소박한 음식으로, 이를 '양' 맞추어 먹는 모습은 부귀를 추구하지 않고 안빈낙도(安貧樂道)하는 삶의 태도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보리밥 파 생채'를 '양' 맞추어 먹는 모습에서 <제1수>의 '부귀'를 구하지 않는 삶의 태도를 확인할 수 있다는 진술은 적절하다.

⑤ <제6수>에서 화자는 '어촌(漁村)이 무릉(武陵)인가 하노라.'라고 하여 화자가 처한 현실적 공간을 이상적 공간인 '무릉'으로 인식할 정도로 현재의 공간에 대해 만족하고 있다. 즉 '부귀'와는 동떨어진 '어촌'에서의 '빈천'한 삶도 만족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화자의 만족감은 <제1수>에서 화자가 '빈천'에 대해 '염(厭)치 말아'라고 말함으로써, '빈천'을 싫어하지 않고 있다는 인식이 바탕이 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6~9] <출전> 문순태, 「말하는 돌」

6. [출제의도] 작품의 특징 파악하기

이 작품은 전쟁의 와중에 비극적인 죽음을 맞이한 부친에 대한 한을 지닌 인물인 '나'의 심경 변화를 통해 주제의식을 드러내고 있다. 즉, '나'가 한의 대상인 '마을사람들'에게 이장 일을 시킴으로써 일종의 정신적 복수를 하려 했으나, 이장 일이 끝난 후에는 결국 이러한 자신의 행위에 대해 부끄러움을 느끼게 되었다는 점에서 과거의 역사적 비극으로 인해 만들어진 한의 해소와 화해의 지향이라는 주제의식이 드러나는 것이다.

① 제시된 부분에서는 시간의 흐름이 역전된 부분이 드러나지 않고 사건이 순차적으로 전개되고 있다. ② 이 글에 제시된 부분에서는 인물의 외양을 세밀하게 묘사함으로써 성격을 구체화하는 서술 방식은 사용되지 않았다. ③ 이 작품은 주인공인 '나'의 시각을 통해 사건을 바라보고 있다. ④ 작품 속 인물인 '나'가 사건을 주관적으로 서술하고 있다.

7. [출제의도] 특정한 사건과 관련하여 인물 이해하기

'네 사람'과 '부면장네 아들'은 돈을 받고 이장 일에 참여했다는 점에서 이들이 앞장서서 이장 일을 주도했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오히려 '장돌식'이 '나'의 부탁에 따라 인부를 부리는 것으로 볼 때, '장돌식'이 '나'와 협력하여 이장 일을 주도하는 인물에 가깝다.

① '나'는 '네 사람'과 '부면장네 아들'을 이장 일에 참여시킴으로써 억울하게 죽은 부친의 한을 풀려고 하였다. 그러나 이장 일이 끝난 후에는 이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었

다고 생각하고 부끄러움을 느끼게 된다. ② '나'가 이장 일을 끝낸 후에야 계획대로 자신의 신분을 밝혔다는 점에서, '네 사람'과 '부면장네 아들'은 이장 일이 끝나기 전까지 '나'의 신분을 알지 못했다고 보는 것이 적절하다. ④ '네 사람'과 '부면장네 아들'은 돈을 받는 대가로 이장 일에 참여하였다. 그러나 '장돌식'은 돈이 아닌 친구에 대한 우정으로 이장 일에 참여하였다고 보는 것이 적절하다. ⑤ 이장 일이 끝난 후 '장돌식'이 '나'에게 "이제야 한이 풀리는가?"라고 말하는 것으로 보아, '장돌식'은 '나'가 이장 일을 통해 이루려 했던 의도를 짐작하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적절하다.

8. [출제의도] 작자의 작품 경향을 바탕으로 작품 감상하기

'나'는 어린 시절 전쟁의 와중에서 부친의 억울한 죽음으로 인해 한을 간직한 인물이다. '나'가 고향을 떠난 지 30년 만에 돌아와 '마을사람들'을 부친의 돌무덤을 이장하는 일에 참여시킨 것도 머슴이었던 아버지가 당했던 설움과 억울하게 죽어갔던 한을 풀기 위한 행위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나'가 한을 맺히게 한 당사자로서 '마을 사람들'에게 화해의 몸짓을 보이고 있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① 부친의 비극적 죽음 이후 고향 마을을 떠났고, 30년이 지나서 그 한을 풀기 위해 고향에 돌아왔다는 점을 볼 때 '나'가 지닌 한이 이 작품에서 탈향과 귀향의 동기가 되고 있다고 하겠다. ② '황바우'가 전쟁의 와중에서 죄 없이 죽임을 당하였다는 점에서 그의 비극적 운명은 우리 역사의 아픔을 드러낸다고 하겠다. ④ '나'는 한을 풀기 위해 고향에 돌아와 '마을사람들'을 이장 일에 참여시키는데, 이장 일이 끝나자 오히려 자신의 행동에 부끄러움을 느끼고 큰 돌을 간직함으로써 '마을사람들'의 마음을 잊지 않으려 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점으로 볼 때 '나'와 '마을사람들'의 재회에는 '나'의 정신적 상처를 치유하려는 작가 의식이 반영되어 있다고 하겠다. ⑤ '마을사람들'이 '나'의 신분을 알고서도 별다른 죄스러움이나 위축감 따위의 기색을 보이지 않았다는 점으로 볼 때, '마을사람들'은 과거 전쟁의 와중에서 서로에게 의도하지 않은 상처를 주었던 아픔에서 어느 정도 벗어나 있다고 하겠다.

9. [출제의도] 소재에 담긴 의미 파악하기

'돌무덤'은 아버지가 누명을 쓰고 억울한 죽임을 당한 후, 어린 내가 벗 '장돌식'과 함께 만든 것이다. 즉, 돌무덤은 부친의 비극적인 죽음과 관련된 한과 아픔의 상징물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돌무덤'이 '나'의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자극하는 매개체라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① 전쟁의 와중에서 억울한 죽임을 당한 부친의 '유골'은 부친의 죽음 이후 30년 동안 '나'가 지닌 한의 근원이 되는 대상으로 볼 수 있다. ② '나'가 자신의 부친을 소처럼 부리고 개처럼 천대하던 주인의 아들들로 하여금 부친의 무덤에 덮을 '뗏장'을 떠 오도록 했다는 점에서, '뗏장'은 '나'에게 한풀이의 수단으로 기능함을 알 수 있다. ③ '나'의 부친이 부면장 댁의 머슴으로서 천대를 받다가 억울하게 죽었음을 고려할 때, '큰 묘등'은 '나'의 부친의 삶에 대한 보상 심리를 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⑤ '나'가 '돌'에 아버지의 혼, '장돌식'과의 우정, 월곡리 마을사람들의 마음이 담겨 있다고 말하는 점에서, '돌'은 '나'가 오래도록 잊지 않을 만한 가치를 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10~13] (현대시) 백석, <두보(杜甫)나 이백(李白)같이>
문태준, <가재미 3 – 아궁이의 재를 끌어내다>

10. [출제의도] 작품 간의 공통점 파악하기

(가)에는 화자의 외로움을 상대적으로 더 심화시키게 되는 시간적 배경인 '대보름 명절', 결핍의 정서를 심화시키는 '마른 물고기 한토막' 등의 시구가 반복되고 있으며, 화자가 정서적으로 공감을 느끼게 되는 '두보나 이백 같은 이 나라의 시인'이 '두보나 이백 같은 사람들'로 변주되어 나타나기도 한다. (나)에는 춥고 쓸쓸한 분위기를 조성하는 '고욤나무'나 화자의 바람이 담긴 장소인 '그녀의 방' 등이 반복되고 있으며, 그녀를 위한 화자의 상징적인 행위를 의미하는 '그녀의 집 아궁이의 재를 끌어낸다'는 시구가 '그녀의 집 아궁이의 재를 모두 끌어낸다'로 변주되어 나타나고 있다. 이렇듯 (가)와 (나)에 나타나는 시구의 반복과 변주는 모두 시에 나타난 특정 상황과 화자의 심리를 부각하는 기능을 하고 있다.

② (가)와 (나) 모두 특정 대상을 청자로 설정하고 있지 않다. ③ (나)에만 '눈보라'로 인해 흰색의 색채 이미지가 드러나고 있으며, 탈속의 세계에 대한 지향은 (가)와 (나) 모두에서 나타나지 않는다. ④ (가)에만 '탕탕', '빨빨' 등의 음성 상징어가 나타나고 있다. ⑤ (나)에만 '오후', '것'의 명사형 시행 종결이 나타난다.

11. [출제의도] 외적 준거에 따라 작품 감상하기

㉡은 과거 언젠가 두보나 이백이 찾아갔을 것이라고 화자가 상상해 본 장소일 뿐, 화자가 이곳에서 두보나 이백이 과거에 겪었던 상황을 경험한 것은 아니다.

① ㉠은 화자에게 '일가친척들과 서로 모여 즐거이 웃음으로' 명절을 보내던 기억이 있는 곳이므로 정서적 유대를 경험한 곳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③ ㉢에는 대보름 명절의 축제 분위기가 조성되어 있으므로 타관에서 소외감을 겪고 있는 화자의 정서와 대비되는 곳으로 볼 수 있다. ④ ㉣은 '그녀'가 더 이상 이 공간에 존재하지 않음을 실감하게 함으로써 화자에게 상실감을 유발하는 장소이다. ⑤ ㉤은 실재하는 공간이 아니라 추위로 고통 받았던 그녀의 삶에 대해 화자가 느낀 연민의 정서, 그 내면 의식이 만들어 낸 상상의 장소이다.

12. [출제의도] 소재의 의미 파악하기

'한고향 사람의 조고마한 가업집'은 낯선 타관에 있는 화자가 일시적으로 정서적 유대를 경험하기를 소망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화자 내면의 지향점에 해당하는 장소로 보기 어려우며, 이 장소가 현재 화자가 머물고 있는 집에서 느끼는 부정적 장소감을 긍정적으로 변화시켜 주고 있지도 못하다.

② 화자는 과거 고향에서 '일가친척들'과 함께 '떡과 고기'를 실컷 먹으며 명절을 즐겁게 보낸 기억이 있기 때문에 현재 '마른 물고기 한토막'을 먹고 있는 자신의 처지에 더욱 심한 결핍감을 느끼고 있다. ④ '떡국'은 타관에 있는 화자에게 '마음을 느꾸어 위안'하게 만들 수 있는 소재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아득하니 슬'프게 만드는 소재이기도 하다. ⑤ 화자는 '떡국'과 유사한 음식인 '원소'를 떠올리게 되면서 과거 자신과 비슷한 처지, 즉 타관에서 외로움을 느꼈을 중국의 옛 시인들과 시간과 공간의 경계를 넘어 동질감을 느끼고 있다.

13. [출제의도] 외적 준거에 따라 작품 감상하기

화자는 '그녀'가 '저 먼 나라'에서는 '눈보라조차 메밀꽃처럼 따뜻'한 방에 머물게 되기를 바라고 있는 것이지 '그녀'가 이승에서의 추위를 따뜻했다고 기억하기를 바라고 있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화자는 '그녀'가 이승에서의 모든 기억을 다

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아궁이의 재를 끌어내고 있다.
③ 화자가 '그녀에게 해줄 수 있는 일'은 식은 재를 끌어 내 '그녀가 불의 감각을 잊도록 하는 것'이다. 불의 감각은 그녀가 이승에서 느꼈던 감각에 해당하는 것으로 화자는 그녀가 이승에서 겪었던 고통스러운 기억을 모두 잊기를 바라고 있다. ⑤ 화자는 그녀를 위해 재를 하나도 남김없이 모두 끌어낸다. 화자의 이 같은 행위는 그녀의 이승에서의 아픈 기억을 모두 없애 줌으로써 그녀가 진정으로 자유로운 영혼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 그리고 그녀와 관련한 자신의 슬픔, 즉 그녀의 과거 고통스러운 삶을 떠올리며 느끼는 슬픔과 그녀의 부재로 인한 슬픔까지를 모두 비워 냄으로써 화자 자신도 마음의 평온을 찾기를 바라는 마음이 모두 반영되어 있다.